

김태호 PD “새 시즌 한다면 ‘마블’처럼”

무한도전 13년 항해 마쳐

“답 찾으면 돌아와야죠”

이적설에 “사실 아니다”



“휴식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였죠. 늘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31일로 13년간의 항해를 끝낸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의 선장 김태호 PD(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김 PD는 “‘무한도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려 했던 것은 돈, 명예보다 프로그램의 색깔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무한도전’의 색깔이 제 색깔이었던 상황에서 점점 자괴감이 왔다.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돌아온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머릿속에 어떤 구상도 없다”면서 “다만 돌아온다면 전체 스토리는 유지하되 후배 PD들과 나눠 하는 ‘마블’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돌아온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면 좋겠지만 아직 머릿속에 어떤 구상도 없다”면서 “다만 돌아온다면 전체 스토리는 유지하되 후배 PD들과 나눠 하는 ‘마블’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중영 소감은.

▲처음에는 방송화법에 부적합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2008년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브라이어티가 됐다. 지켜야 할 룰들이 생기면서 2010년부터는 변화를 고민했다. 전통과 신선함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인사도 쉬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한도전’을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한 결론이다. 제작진과 유재석 씨가 올해 볼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고 얘기했다. 13년간 멤버들과 함께하다 보니 가족처럼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 초반보다 예상외의 모습을 볼 기회도 줄었다. ‘1등 예능’도 좋지만 매년 특별한 방송이 되고 싶었다.

-중영에 대한 멤버들 반응은.

▲저는 안 울었는데 멤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멤버들에게는 목요일마다 MBC로 출근하는 게 하루 세끼처럼 습관이 됐다. 멤버들이 농담처럼 ‘다음주에 서로 MBC 주변에서 돌다가 마주치기 말자’고 하더라. 아직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 서서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멤버들 간 ‘예능관’이 조금씩 달랐다. 관찰 예능들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쳐나갈지도 고민이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돌아올 것이다.

-언제 ‘무한도전’ 시즌2를 볼 수 있나.

▲당장 6개월 후에 시즌2로 돌아오겠다고 할 수 있었던 멈춤 이유도 없었다. ‘무한도전’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그리기 힘들다. 13년간 저녁에 집에서 아내, 아들과 밥을 먹은 적이 별로 없다. 일단 가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들 한글 공부도 시켜야 한다. (웃음) ‘이거 할 만하다’는 게 생기면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

-MBC에 계속 있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전 다른 회사 관계자나 타사에게 후배들 얘기를 들으며 오히려 그 회사들의 좋은 부분을 우리 회사로 옮겨올 수 없을까 생각한다. 제게 아직 ‘무한도전’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현대카드, YG엔터테인먼트 간

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거길 가서 뭘 하겠다. 박병 자리? (웃음) 다음주부터는 부장이 아닌 일반 PD로서 개발팀으로 출근한다. 제가 평소 여러 플랫폼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 이적설도 나온 것 같다.

-‘무한도전’에 참여했던 멤버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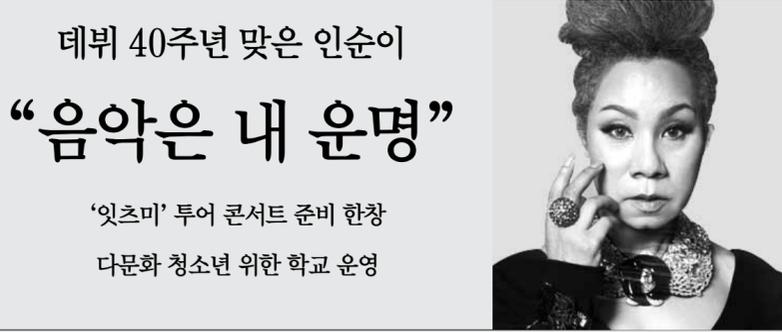
▲유재석이 없었다면 ‘무한도전’은 없었다. 가장 많이 대화했다. ‘자신 있게 해보자, 안되면 말고’에 공감해준 것도 재석 씨다. 그와 사이가 틀어졌다든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박명수 씨는 끝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 (웃음) 본인의 색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외주해서 감사드린다. (예능감에) 기록이 심한 본인 데 저희가 활용을 잘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다. (정)형동도 그렇다. 용기 내서 총방안에 나왔는데, 그가 가진 아픔을 좀 더 일찍 짚길 그랬던 생각이 들었다. 하하 씨는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로, 공에 비해 성과가 적어 아쉬운 마음이다. 노홍철 씨도 ‘무한도전’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더라. 양세형 씨는 마음 아픈 멤버 중 하나다. 처음부터 너무 잘해서, 저희가 필요해 초대할 인물인데 드러내놓고 우리 멤버라 얘기 못했다. 조세호 씨는 2009년부터 인연을 맺었다. (웃음)

-기억에 남는 특집과 아쉬운 부분.

▲처음에는 2%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전하는 데 의미를 뒀다면 이해해부터 2009년까지는 캐릭터가 생생되면서 좋았지만 재미는 게 많았다. 2010년부터는 고통이 많았다. 그때부터 사회적 화두를 던지려 노력했다. 역사 문제, 선거 제도, 대체 에너지, 법안 발의 같은 것들. 계몽주의적이라 비판한 분도 있지만 1년에 한두번은 의미를 주고 싶었다. 일본 우토로 마을에 다녀왔을 때 두 호평방은 후에는 ‘이 방송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만큼 다음주 방송을 준비하는 게 두려웠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영동 고속도로 가요제를 할 때는 배달의 무도 특집과 함께 준비했는데, 끝나고 나니 고통이 2배였다.

-‘라이벌’인 CJ E&M의 나영석 PD를 보며 드는 생각.

▲워낙 본인이 자신의 색을 잘 살려서 잘하고 있지 않다. 인센티브를 얼마나 많이 받나 궁금하다. (웃음) 우리 후배들도 잘한 만큼 대우받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데뷔 40주년 맞은 인순이 “음악은 내 운명”

‘잇츠미’ 투어 콘서트 준비 한창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학교 운영

어려운 가정 형편, 집안 생계를 위해 나선 음악의 길.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인순이(61·사진)는 “나에게 꿈이 없었다. 친정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이 목표였지 가수가 꿈은 아니었다”며 “그래서 음악은 내게 삶이나 인생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다”고 돌아보았다.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연습실 블루노트에서 만난 인순이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 40주년 기념투어 ‘잇츠 미’(IT'S ME) 연습이 한창이었다.

그는 1978년 김원선의 이모고(故) 한백희 씨가 데뷔시킨 걸그룹 혼자대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고 1980년 솔로 가수로 나섰다. 이번 공연에서는 희자매의 ‘실버들’을 부른 뒤 바로 요즘 곡을 들려주면서 몇분 만에 40년의 시차가 달라지는 구성을 선보인다.

-40년을 보낸 소회는.

▲40년 세월을 건장한 일상에 노래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어린 시절 희자매로 트로트를 부르며 시작했고 패티김 선배님처럼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는 것이 롤모델이었는데,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온 것 또한 기적이다. 정말 기적 같은 날들이기에 팬들에게 감사하다. 힘든 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만 힘든 게 아니며, 어린 시절 못 먹고 입을 때보다 너무 행복한 나날이다.

-공연은 어떻게 꾸미나.

▲내게 골수 팬은 없지만 공연에는 다양한 세대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곡을 골라보니 ‘아버지’, ‘사랑가’, ‘딸에게’ 등 다 느린 템포의 곡이었다.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 tvN 드라마 ‘기억’의 OST 곡으로 불렀던 ‘선물’인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 재작년부터 백두대간 등반을 다니는데 당시 2박 3일간 지리산 종주를 마치고 돌아와 ‘선물’을 녹음해야 했다. 산에서 이 노래를 듣다가 ‘울고 있던 내가 웃는 줄 알았어’란 가사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이보다 젊은 이미지는 ‘친구여’와 ‘거위의 꿈’ 등 젊은층과 소통의 힘이 컸다고 본다. ▲제겐 다섯 번의 기적이 있었다. 첫 번째 기적은 1994년 KBS 2TV ‘열린음악회’에서의 호응이었다. 그때 ‘남은 먼 곳’과 ‘라밤바’를 불렀는데 이전까지 오랜 슬럼프였던 내게 상상치 못한 앙코르가 나와 ‘장부타령’을 반주 없이 불렀고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다. 두 번째 기적은 박진영 씨가 작곡해 1996년 발표한 ‘또...’다. 세 번째 기적은 댄스 가수 직계인 정원관 씨의 요청으로 조PD의 곡 ‘친구여’에 피쳐링한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 것인데 ‘누나 지금 트렌드가 그게 아니라’라며 데모곡을 보내왔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다. 네 번째 기적은 신곡을 홍보하러 나간 KBS 2TV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카

니발(이적, 김동률)의 ‘거위의 꿈’을 부른 것이다. 다섯 번째 기적은 MBC TV ‘나는 가수다’ 출연이다. 미국에서 돌아와 뮤지컬 ‘캣츠’를 준비 중이었는데 처음엔 망설였다. 그런데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날 불러줬을 때도 목소리와 용기가 남아 있을까’란 생각에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희자매에는 어떻게 캐스팅됐다. ▲(희자매를 데뷔시킨) 한백희 언니는 색다른 팀을 만들고 싶었고, 그때 내가 혼혈이란 점이 끌렸던 것 같다. 우리 희자매 셋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그때 발레 수즈도 신어보고, 실장구나 한국무용도 배웠다. 언니는 소울 좋아하는 분이어서 히트곡보다 소울 만들려 했다. 그때 춤을 많이 배워 뮤지컬 ‘시카고’를 할 때도 춤이 어렵진 않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아픔을 직접 겪었기에 학교도 만든 것인가. (2013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설립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부모님 원망을 많이 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는 중학교 과정의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지금은 다문화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절반씩 다니고 있다. 이전까진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봐야 했는데 작년 11월에 졸업 인증 기관이 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위대한 유혹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 (재)	00 12 MBC 뉴스 20 위대한 유혹자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2	00 KBS 뉴스 12 3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00 다큐멘터리 3일 (재)	3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55 닥터 365
1	2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10 좌중우돌 만국유림기 (부산M)	00 뉴스브리핑
2	20 콘서트 필 (재)	00 자동차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사이닝스타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00 토크콘서트 화통
3	10 역사저널 그날 (재)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0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4	00 4시 뉴스집중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엔 이런일이 (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왠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00 인형의 집	00 키스먼저 할까요?	
8	25 미워도 사랑해	00 인형의 집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9	00 KBS 뉴스9 50 가요무대	00 인형의 집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0	50 KBS 뉴스라인	00 인형의 집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1	30 월요기획	00 인형의 집	10 가요베스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2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30 이웃집 찰스 (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어리 25 오지의 마법사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화산섬의 비밀	14:30 똑딱맨	19:30 EBS 뉴스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일본 료관 속으로 -1부 진짜 일본을 만나다>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00 한국기행	09:40 강행목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15 파프리카	20:40 세계테마기행 <지중해 황금루트 스페인, 모로코 안달루시아 지도 밖으로의 여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30 한국기행 <사산기행-엄마의 소くり 목욕하니 살다보면>
07:00 플라워링 하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쌈부기 오징어초무침과 두릅생채>	15:45 부릉!부릉! 부름미즈	21:50 EBS 다크프라임 <관찰기록 100세의 사생활>
07:30 로보가 놀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냉창고 나라, 코코몽	22:45 메디컬 닥터-7요일
07:45 출동! 슈퍼폴스2	12:00 EBS 정오 뉴스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엄마를 찾자마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2:10 극한인물 스페셜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지식생활e
08:30 허준성이 과학쇼	13:00 다크 오늘 <세계로 가는 중국 청바지>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1부>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17:15 로보가 놀리	
09:00 몬카트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7:30 마사와 곰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스파이더맨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음 2월 17일 甲子)

<p>子</p> <p>36년생 소강상태이다. 48년생 진짜 속내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다. 72년생 심기가 불편하리라. 84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실행해야 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6, 94</p>	<p>午</p> <p>42년생 기괴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54년생 허심탄화한 토로가 물고 뜨게 하리라. 66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의미는 대단히 크다. 78년생 진면모를 알고 있어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90년생 성과를 도출한다. 행운의 숫자 : 01, 84</p>
<p>丑</p> <p>37년생 스스로 따라 오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9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61년생 목표를 향해 발돋움하게 된다. 73년생 인식한 예과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85년생 완곡하게 처리하라. 행운의 숫자 : 60, 31</p>	<p>未</p> <p>43년생 실수를 차려야 할 때이다. 55년생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리라. 67년생 빠짐없이 준비해 뒤야 대처하기에 용이하다. 79년생 애매한 입장이라면 애에 관여하지 않음에 배 반 나을 것이다. 91년생 과감한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72, 82</p>
<p>寅</p> <p>38년생 막바지에 이르렀느니라. 50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 본다. 62년생 희박했던 가능성이 농후해지리라. 74년생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코 다칠 수 있다. 86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90, 03</p>	<p>申</p> <p>44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이해 후회하지 않는다. 56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낫다. 68년생 뒤집어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다. 80년생 과거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92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53, 38</p>
<p>卯</p> <p>39년생 좋은 조건으로 변해가는 성국이다. 51년생 기탄없이 수용하라. 63년생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절실한 때다. 75년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87년생 김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행운의 숫자 : 02, 30</p>	<p>酉</p> <p>45년생 계속 진행한다면 전도양양하리라. 57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 선택이 용이하다. 69년생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81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93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81, 59</p>
<p>辰</p> <p>40년생 물고기가 활연히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로다. 52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64년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76년생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88년생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00, 43</p>	<p>戌</p> <p>34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46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58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 시원한 해결을 본다. 70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된다. 82년생 일의 형세가 불가피하다. 행운의 숫자 : 08, 72</p>
<p>巳</p> <p>41년생 지금까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53년생 조심성이 너무 지나치다면 위축되고야 말 것이다. 65년생 모든 일에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77년생 뜻밖의 일이 터진다. 89년생 자체히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9, 75</p>	<p>亥</p> <p>35년생 외형보다 실속이 중요하다. 47년생 무리수 두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9년생 관계의 소중함을 통감하게 된다. 71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 한다. 83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4, 5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